

강기정 시장, 침수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분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9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에 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북구 신안고, 산동고, 하신마을, 서구 양동 태평교 등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남구 빗고을공예창작촌 등 현장에서 안전·피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먼저 주민들을 만나 현재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 뒤에 침수가속 정리 등 긴급복구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군 병력 등 자원봉사자 지원을 관계기관에 재차 요청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피해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침수돼 있는 복구 신안고 일원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했으며, 1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안고 일원 상습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현장 찾아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지원 재차 지시 추가 피해 막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논의

는 한편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기상 관측 이래 426mm의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도로침수 444건, 도로파손 163건, 건물침수 254건, 차량침수 52건, 수목전도 36건 등 총 109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추가 피해상황 접수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도일 기자



남구, '내리쏟은 폭우' 피해 현장 복구 총력 침수·토사 유출 등 피해 신고 195건 안전조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하루 만에 400mm 가량의 폭우로 관내 곳곳에서 생채기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비롯해 대형 공사장과 옹벽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추가 피해를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 피해 신고 현장 신속 복구=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관내에는 최대 383mm의 장대비가 쏟아졌다. 지난 1989년 기상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해 봉선동 정일품 사거리와 진월동 한 교회 앞 등 169곳에서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송하동 남산연탄 앞 길가와 월산 근린공원 언덕길 등 9곳에서는 폭우에 휩쓸려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잇따랐다.

또 송암공단을 포함해 7곳에서는 토사 유실과 함께 기타 피해 신고 10건이 접수됐다. 남구는 피해 상황이 접수된 195건에 대해 모두 안전조치

를 끝마쳤다.

● 철야 근무 등 비상근무 유지= 남구는 지난 17일 오전부터 급작스럽게 물 폭탄이 쏟아지자 곧바로 전 직원 1/2이 철야 근무하는 비상 3단계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빗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18일 오전 6시부터 대응 수준을 비상 1단계로 낮추고, 관내 곳곳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모으고 있다.

● 응급복구 장비 투입= 현재 재난 안전대책본부 근무자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총괄과 등 구청 내 재난 대응 부서에서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이 접수되는 대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 2대와 크레인 2대, 굴삭기 1대 등 응급복구 장비 및 해머와 삽 등 수방공구 564개를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다.

임재일 기자

전라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일본 나라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참여해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 역사문화 명소, 주민 협력사업 등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해서 이뤄진다.

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

전남도, 무등산권 지질공원 유네스코 재인증 도전 전문가 평가단, 28~31일 광주·담양·화순 일대 현장실사

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펜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과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 전반을 평가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와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9월 베트남 까오방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총회에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중국 운태산 세계지질공원과 업무협약을 하는 등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현장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과 협력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 하반기 진행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강사 모집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시민참여 등 4개이며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모집에는 문화예술 분야 중 밴드 및

북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야별 강사 모집 문화예술·인문교양·직업능력·시민참여 등 4개 분야 강사 모집

악기 분야는 접수받지 않는다. 모집 절차는 서류접수 및 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심사는 평생학습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접수받은 서류를 적격성, 적합성, 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한 뒤 이달 말 최종 2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강사로 최종 선발되면 오는 9월부터 두 달간 북구 평생학습관(향토문화로 65)에서 10차시 내의 분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번 모집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북

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메일(muji@kore.kr)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845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제공하고자 역량 있는 강사를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확대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동구-스마트인재개발원, 'AI 중심도시 실현' 맞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사)스마트인재개발원과 18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전환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역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임택 구청장, 차춘섭 스마트인재개발원 이사장, 반수경 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 공동 추진 ▲AI 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 취업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동

구 지역 맞춤형 특화 교육 및 산업 전환 교육 추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춘섭 이사장은 "동구와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AI 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구가 AI 기반의 창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